

국어 기출해설

해설 - 오대혁 교수(수원경찰공무원사관학원)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실을 갖추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면에 역사가가 없다면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역사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궁극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이 끊임없이 겪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이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인 셈이다.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들에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

- ① 성공(成功):실패(失敗) ② 시상(施賞):수상(受賞)
- ③ 판매(販賣):구매(購買) ④ 공격(攻擊):방어(防禦)

1. 정답 ①

해설 [단어의 의미 관계] 난도 中

단어의 의미 관계 중 '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반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오직 한 개의 의미 성분만 다르고 나머지의 의미 성분들을 모두 같아야 한다. 이러한 반의어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상보 반의어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나눔. 남성/여성, 미혼/기혼, 참/거짓, 삶/죽음
등급 반의어	두 단어 사이에 정도성(gradability)이 있음. 뜨겁다/차갑다, 덥다/춥다, 쉽다/어렵다
방향 반의어	두 단어가 서로 방향성으로써 대립됨. 동/서, 부모/자식, 주다/받다, 가다/오다

이 가운데 두 단어가 서로 방향성에서 대립을 이룬 경우가 아닌 것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① '성공:실패'는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나누는 상보 반의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방향 반의어에 해당한다.

2. 토론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론을 시작하면서 논제가 타당한지 토론자들의 의견을 묻는다.
- ②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 안내한다.
- ③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을 약화시킨다.
- ④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하여 논쟁의 확산을 피한다.

2. 정답 ②

해설 [말하기-토론] 난도 下

토론은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면서 변증법적 결론을 이끌고자 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찬성과 반대 양론으로 나뉘어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므로 사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사회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토론의 장소와 참가자의 좌석을 지정한다.
- ② 토론의 내용을 알린다. 토론이 본래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③ 문제가 혼란해지거나 의견이 대립될 경우에는 논점을 정리해서 참가자 전원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 ④ 어떤 사람이 말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말을 알아듣도록 다시 말해 준다.
- ⑤ 판정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고, 토론을 종결한다.

제시된 선택지 가운데서는 '②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 안내한다.'는 진술이 타당하다.

오답 피하기 ① 논제는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전에 토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토론 자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토론자들이 행할 일이다. ④ 사회자는 토론자들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3.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멕시코의 환경 운동가로 유명한 가브리엘 과드리는 196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앙아메리카 전체 농토의 2/3가 축산 단지로 점유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87년 이후로도 멕시코에만 1,497만 3,900ha의 열대 우림이 파괴되었는데, 이렇게 중앙아메리카의 열대림을 희생하면서까지 생산된 소고기는 주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그렇지만 이 소고기들은 지방분이 적고 미국인의 입맛에 그다지 맞지 않아 대부분 햄버거 재료로 사용되었다.

- ①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이론적 근거를 나열하여 주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전문 용어의 뜻을 쉽게 풀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3. 정답 ①

해설 [쓰기] 난도 下

가브리엘 과드리는 목초지의 조성을 위해 중앙아메리카 숲의 25%가 사라졌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앙아메리카 농토의 2/3가 축산 단지로 점유되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실제 중앙아메리카의 열대 우림이 파괴되면서 생산된 소고기는 미국으로 수출되었고, 그 소고기는 미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아 햄버거 재료로 이용되었다고 했다. 아마도 명제는 중앙아메리카가 인간들이 육식을 위해 열대 우림을 파괴해 왔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문이 나온 것인데,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이 가곡의 노래말은 아름답다. ② 그 집의 순대국은 아주 맛있다.
- ③ 하교길은 늘 아이들로 북적이다. ④ 선생님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다.

4. 정답 ④

해설 [한글맞춤법] 난도 下

사잇소리 현상이 벌어져 사이시옷을 쓸지 말지를 묻는 문제이다. '인사말'은 [인사말]로 발음되어 사잇소리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아야 옳다.

오답 피하기 ① [노랫말]로 발음되므로 '노랫말'이 맞다. ② [순댓국/순대국]으로 발음되므로 '순댓국'이 맞다. ③ [하:곶길/하:교길]로 발음되므로 '하곶길'이 맞다.

5.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반영론은 문학 작품이 사회를 반영하여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는 관점을 취한 비평적 입장이다.

(나)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 ① 전통적 민요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 정형적 형식을 통해 절제된 시상이 효과적으로 드러났군.
- ②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유유자적한 삶을 그린 것은 아닌지 비판할 여지가 있군.
- ③ 낭만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분위기가 시조에서 보이는 선경후정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군.
- ④ 해질 무렵 강가를 거닐며 조망한 풍경의 이미지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감각을 자아내는군.

5. 정답 ②

해설 [문학비평] 난도 中

(가)의 “사회를 반영하여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이라는 내용을 통해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유유자적한 삶을 그렸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②가 답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내재적 접근(존재론, 절대론), 형식주의 비평 ③ 내재적 접근(존재론, 절대론), 구조주의적 비평 ④ 내재적 접근(존재론, 절대론)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을 벗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수험 공부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결코 반가운 벗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불행한 만남일 뿐입니다. 밑줄 그어 암기해야 하는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 됩니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독서는 삼독(三讀)입니다.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 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 ① 독서는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自己化)하는 과정이다.
- ② 반가운 벗과의 독어야말로 진정한 독자로 거듭날 수 있는 첩경(捷徑)이다.
- ③ 시대와 불화(不和)한 독자일수록 독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기 쉽다.
- ④ 자신이 배운 것을 제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우(交友) 관계가 중요하다.

정답 ①

해설 [독해-추론] 난도 中

신영복의 「책은 먼 곳에서 찾아 온 벗입니다」 라는 글이다. 여기서 독서는 삼독(三讀)이어야 한다고 했다. 텍스트를 먼저 읽고, 다음으로 필자를 읽으며, 최종적으로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정리한 것이 “독서는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自己化)하는 과정이다”라고 한 ①이다.

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 중에 깨끗한 옷만 골라 입으세요. ② 어제는 밤이 늦도록 옛 책을 뒤적였다.
- ③ 시간 날 때 낚시나 한 번 같이 갑시다. ④ 사람들은 황급히 굴 속으로 모여들었다.

7. 정답 ②

해설 [띄어쓰기] 난도 中

‘옛(관형사) 책(명사)’은 구일 뿐 합성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는 합성어로 붙여 써야 옳다.

‘옛-’이 들어간 합성어
 옛날, 옛말, 옛꿈(지난날의 꿈), 옛일, 옛정, 옛길(예전에 다니던 길), 옛시조(고시조), 옛이음, 옛집, 옛적, 옛글, 옛사랑, 옛터, 옛것, 옛이야기, 옛사람, 옛친구

오답 피하기 ① 그중: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 ※ ‘그 가운데’는 띄어 쓴다.

비슷한 예) 그동안, 그간, 그사이, 그새, 그다음, 그같이(그 모양으로. 또는 그렇게), 그날, 그때, 그만큼(그만한 정도/그만한 정도로) ③ ‘한번’과 ‘한V번’: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쓴다. ‘한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쓴다. “한번 옆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라는 문장에서 ‘한번’을 ‘두 번’으로 바꾸면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번’을 붙여 쓰지만, “한 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다시 도전하자.”라는 문장에서 ‘한 번’은 ‘두 번’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므로 ‘한 번’으로 띄어 쓴다. ④ 굴속: 1. 굴의 안. 2. 굴처럼 캄캄한 곳을 비유하는 말.

‘-속’이 들어간 합성어
 꿈속, 머릿속, 산속, 물속, 가슴속, 마음속, 귓속, 땅속, 몸속, 숲속, 바닷속, 안속(속마음), 뱃속(마음), 불속(고통스러운 지경), 탄속(탄마음), 배춧속(배추의 속에 있는 연한 잎, 배추로 포기김치를 담글 때 배춧잎 사이에 넣는 양념)

8.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가을일[가을릴] ㉡ 텃마당[툰마당] ㉢ 입학생[이팍생] ㉣ 흙먼지[흥먼지]

- ① ㉠: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② ㉡: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 ③ ㉢: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
- ④ ㉣: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이 적용된다.

8. 정답 ③

해설 [음운론-음운의 개수, 음운의 변동] 난도 上

음가가 없는 ‘ㅇ’은 빼고 음운의 개수를 헤아려야 한다.

‘㉢ 입학생[이팍생]’은 ‘ㅣ, ㅂ, ㅎ, ㅏ, ㅑ, ㅓ, ㅕ, ㅇ’ 등 8개에서 자음 축약이 벌어져 ‘ㅣ, ㅍ, ㅓ, ㅑ, ㅕ, ㅖ, ㅇ’ 등 7개로 바뀌었다.

오답 피하기

① ㉠ ‘가을일[가을닐→가을릴]’은 ‘ㄴ’ 첨가의 사잇소리현상, 유음화 2가지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② ‘㉡ 텃마당[툰마당]’은 사잇소리 현상이 벌어진다. [툰마당→툰마당]. 비음화의 동화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ㄴ’음 치조음이고 ‘ㄹ’이 양순음이므로 조음 위치가 같다는 진술이 잘못이다. ④ ㉣: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이 적용된다. ‘㉣ 흙먼지[흑먼지→흥먼지]’는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겹받침 중 ‘ㄹ’은 탈락되고 ‘ㄱ’이 남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비음화까지 벌어진다.

9.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된다.
→ ‘접수되었을 때에는’은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접수될 때에는’으로 바꾼다.
- ②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된다.
→ ‘과업 지시서 교부’와 서술어 ‘교부한다’는 의미상 중복되며 호응하지 않으므로 앞의 ‘교부’를 삭제한다.
- ③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목적어 ‘수역을’과 서술어 ‘제외되다’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제외된’은 ‘제외한’으로 바꾼다.
- ④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서술어 ‘열람하다’는 부사어 ‘관계자에게’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열람하게 한다.’와 같이 바꾼다.

9. 정답 ①

해설 [어법] 난도 上

‘접수될 때에는’이라는 표현은 가정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② 중복을 피하기 위한 표현으로 잘 고쳤다. ③ 문장성분의 호응을 고려해 잘 고쳤다. ④ 문장성분의 호응을 고려해 잘 고쳤다.

10.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뵈

고인(古人)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퐁 잇너
녀던 길 알퐁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 이황

(나) 술은 어이하야 도흐니 누룩 섯글 타시러라
국은 어이하야 도흐니 염매(鹽梅) 툷 타시러라
이 음식 이 뜯을 알면 만수무강(萬壽無疆)흐리라

- 윤선도, <초연곡>

(다) 우레긋치 소르나는 님을 번기긋치 번뜻 만나
비긋치 오락가락 구름긋치 헤어지니
흉중(胸中)에 빗름긋튼 혼숨이 안기 피듯 흐여라

- 작가 미상

(라) 하하 허허 혼들 내 우음이 정 우음이
하 어척 업서서 늦기다가 그리 되게
벗님넌 웃디들 말구려 아귀 띄여디리라

- 권섭의 시조

- ① (가): 연쇄법을 활용하여 고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 문답법과 대조법을 활용하여 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 ③ (다): ‘긋치’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운율감을 더하고 있다.
- ④ (라): 냉소적 어조를 통해 상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10. 정답 ②

해설 [고전시가-표현기법] 난도 上

(나)는 윤선도의 시조다. 작품에서는 문답법이 사용되고 있고, 내용상 대립되면서 짝을 이루는 대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비슷한 문장 구조의 표현이 대구법을 사용하여 나타나고 있다.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p>술은 어이하야 좋은가? 누룩을 섞은 탓이로다. 국은 어이하야 맛이 좋은가? 소금을 타 간을 알맞게 한 탓이로다. 이 음식의 원리를 알면 나라를 다스림에 만수무강하리라.</p>
--

‘좋은 술과 국’이 나라가 태평한 상태를 가리킨다면, ‘누룩’과 ‘염매’는 임금과 신하가 제각기 제 역할을 다함을 뜻한다. 술맛이 좋은 것은 누룩의 탓이요, 국맛이 좋은 것은 소금과 식초로써 맛을 잘 맞추었기 때문이듯이, 임금이 만대에 훌륭한 정사를 펴려면 신하들의 훌륭한 보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시조는 나라가 오래도록 번성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신하가 저마다의 역할에 충실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종장에서 임금의 만수무강을 비는 충성심이 곁들여지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법’의 활용과 고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학문 정진을 주제로 한 이황의 「도산십이곡」 중의 한 수다. ③ (다) 반복 표현은 언제나 운율감을 자아낸다. ‘긋치’의 반복은 운율감을 더한다는 것이 맞다. 직유법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면서 이별의 슬픔을 주제화하고 있는 작자 미상의 작품이다.

<p>우레같이 소리 나는 입을 번개같이 번뜻 만나 비같이 오락가락(사랑을 주고받고) 구름같이 헤어지니 가슴 가운데 바람 같은 한숨이 안개 피듯 하는구나</p>
--

④ (라)는 진정한 웃음을 지을 수 없게 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풍자를 주제화하고 있다. 냉소적 어조를 통해 상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다.

하하 허허 하고 있다고 해서 내 웃음이 정말 웃음인가.
 하도 어처구니없어서 느끼다가 그리 웃네.
 사람들이 웃지들 말구려 아귀가 찢어질지 모르네.

11.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의미	문장
살다	경기나 놀이에서,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	㉢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 ① ㉠: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만 살아 있다.
- ② ㉡: 그는 벼슬을 살기 싫어 속세를 버렸다.
- ③ ㉢: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 있다.
- ④ ㉣: 그렇게 세계 부딪혔는데도 시체가 살아 있다.

11. 정답 ③

해설 [의미론] 난도 下

㉢에는 “어렸을 때 배운 노래가 머릿속에 아직도 살아 있다.”와 같은 문장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선택지에 제시된 문장은 “사람이나 사물의 기세, 기운 따위가 뚜렷이 나타나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예문들이다.

12.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 홍○○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홍 교수: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홍 교수: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게 유도하여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가요?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홍 교수: 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 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 사고 비율이 2014년에는 9.0%였으나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홍 교수: 네,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차량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고 해도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만 할 수는 없을 테고, 뭔가 보완책이 있나요?
 홍 교수: 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취지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홍 교수: 일회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아, 운전면허를 반납한 당시에만 교통비가 한 차례 지원된다는 말씀이군요.
 홍 교수: 네, 이분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할 듯 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①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짓는다.
- ② 상대방이 인용한 통계 자료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한다.
- ③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 이외에 추갓거인 정보를 요구한다.
- ④ 상대방에게 해당 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12. 정답 ①

해설 [말하기-대화] 난도 下

진행자가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짓고 있지 않다. ‘홍 교수’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자, 이에 덧붙여 진행자는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애썼다. 역사의 법칙이란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다른 한편,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가?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했다. 반면,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정리한 듯했다.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인 유전[biological inheritance]을 역사에서의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인 획득[social acquisition]과 혼동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다.

- ①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 ② 인간 유전의 사회적 의미
- ③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④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13. 정답 ④

해설 [독해-제목 찾기] 난도 中

‘계몽주의 사상가’와 ‘헤겔’, ‘다윈’ 등 진보와 진화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 소사가 말하기를, “신부(新婦)가 이제 내 집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남편을 도울꼬?”
 사씨 대답하여 말하기를, “첩(妾)이 일찍 아버를 여의고 자모(慈母)의 사랑을 입사와 본래 배운 것

이 없으니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치 못하옵거니와 어미 첩을 보낼 제 중문(中門)에 임(臨)하여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공경(公卿)하며 반드시 경계(警戒)하여 남편을 어기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경경(耿耿)하여 귓가에 있나이다.”

유 소사가 말하기를, “남편의 뜻을 어기오지 말면 장부(丈夫) 비록 그른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順從)하라?”

사씨 대 왈, “그런 말이 아니오라 부부(夫婦)의 도(道) 오륜(五倫)을 겸(兼)하였으니 아비에게 간(諫)하는 자식이 있고 나라에 간하는 신하 있고 형제(兄弟) 서로 권하고 붕우(朋友) 서로 책(責)하나니 어찌 부부라고 간쟁(諫諍)치 않으리이까? 그러하나 자고로 장부(丈夫) 부인(婦人)의 말을 편청(偏聽)하면 해로움이 있삽고 유익(有益)함이 없으니 어찌 경계 아니 하리이까?”

유 소사가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의 며느리는 가히 조대가*에 비할 것이니 어찌 시속(時俗) 여자가 비칠 바리오.”라고 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조대가: 《한서(漢書)》를 지은 반고(班固)의 누이동생인 반소(班昭).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왕실 여성의 스승으로 칭송이 자자했다.

- ① 사씨의 어머니는 딸이 남편에게 맞섰던 일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사씨는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유 소사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효성이 지극한 사씨의 모습에 흡족해 하고 있다.

14. 정답 ③

해설 [고전소설] 난도 上

사씨는 ‘반드시 공경(恭敬)하며 반드시 경계(警戒)하여 남편을 어기오지 말라.’라고 했다고 밝힌 후, 유 소사가 장부(丈夫) 비록 그른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順從)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어찌 부부라고 간쟁(諫諍)치 않으리이까? 그러하나 자고로 장부(丈夫) 부인(婦人)의 말을 편청(偏聽)하면 해로움이 있삽고 유익(有益)함이 없으니 어찌 경계 아니 하리이까?”라고 했다.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씨남정기」의 핵심 사항

- 1. 갈래 : 고소설, 국문소설, 가정소설, 목적소설
- 2. 성격 : 풍간적(諷諷的, 넌지시 둘러서 말하여 잘못을 고치도록 깨우침), 가정적
- 3. 배경
 - * 공간적 - 중국, 금릉 순천부 유씨 집안, 사씨의 남정 행로
 - * 시간적 - 명나라, 유연수의 출생부터 80세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 * 사상적 - 유교적 세계관, 권선징악
- 4. 주제 : 처첩간의 갈등과 사씨의 덕성 및 고행
- 5. 구성
 - * 발단 : 유연수는 15세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제수받는다.
 - * 전개 : 유한림은 덕성과 재학(才學)을 겸비한 사씨와 결혼하나, 후사가 없어 교씨를 첩으로 맞는다. 교씨는 천성이 간악하여 정실이 되기 위해 사씨를 참소한다. 유한림은 결국 사씨를 내쫓고 교씨를 정실로 삼는다.
 - * 위기 : 교씨와 사통한 문객 동청의 모함으로 유한림은 유배를 가게 된다.
 - * 절정 : 유한림에 대한 혐의가 풀리고 충신을 참소한 동청은 처형당한다.
 - * 결말 : 사씨와 해후한 유한림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씨를 처형하고 사씨를 다시 정실로 맞는다.

15. 다음 글에서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깥은 어둡고 뜰 변두리의 늙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었다. 처마 끝 저편에 퍼진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으나, 아스무레한 초여름 기운에 잠겨 있었다. 집은 전체로 조용하고 쓸렁했다.

꽝 당 꽝 당

먼 어느 곳에서는 이따금 여운이 긴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밑 거리의 철공소나 대장간에서 벌겍게 단 쇠를 쇠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근처에는 그런 곳은 없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굉장히 굉장히 먼 곳이 것이었다.

꽝 당 꽝 당

단조로운 소리이면서 송곳처럼 쑺는 구석이 있는, 밤중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참, 저거 무슨 소리유?”

영희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글쎄, 무슨 소릴까…….”

정애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이 근처에 철공소는 없을 텐데.”

“…….”

정애는 표정으로만 수궁을 했다.

꽝 당 꽝 당

그 쇠붙이에 쇠망치 부딪치는 소리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내 이어질 모양이었다. 자세히 그 소리만 듣고 있으려니까 바깥의 선들대는 늙은 나무들도 초여름 밤의 바람에 불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소리의 여운에 울려 흔들리고 있었다. 저 소리는 이 방안의 책 틈서리를 쪼개고도 있었다. 형광등 바로 위의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었다.

- 이호철, <달아지는 살들>

- ① ‘서늘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다.
- ② ‘꽝 당 꽝 당’ 소리는 인물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한다.
- ③ ‘단조로운 소리’는 반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
- ④ ‘소리의 여운’은 단선적 구성에 변화를 주어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

15. 정답 ④

해설 [현대소설] 난도 中

‘소리의 여운’은 “저 소리는 이 방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도 있었다. 형광등 바로 위의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었다.”라는 표현에 나오듯 소리는 정신적 고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 작품은 한 가정을 무대로, 20년이나 돌아오지 않는 만딸을 기다리는 초조한 상황을 소설화한 것이다. 팡당팡당 하는 쇠붙이 소리는 배경음으로 분단의 비극이 한 가정에 가져다 준 정신적 고통을 상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나는 〈일 포스티노〉를 세 번쯤 빌려 보았다. 그 이유는 이 아름다운 영화 속에 아스라이 문학이 파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쉽고도 절실하게 설명해 놓은 문학 교과서를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칠 때 나는 종종 영화 〈일 포스티노〉를 활용한다. 수백 마디의 말보다 〈일 포스티노〉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훨씬 빨리 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시를 공부하면서 은유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수차례 무릎을 쳤을 것이다. 마리오 루폴로가 네루다에게 보내기 위해 고향의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여기서 해변의 파도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은유의 출발이라면 어부들이 그물을 걷어 올리는 소리를 담고자 하는 모습은 은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밤하늘의 별빛을 녹음하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이 이르면 은유는 절정에 달한다. 더 이상의 구차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 ① 영화 〈일 포스티노〉는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와도 같다.
- ② 영화 〈일 포스티노〉의 인물들은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
- ③ 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 영화 〈일 포스티노〉를 참고할 만하다.
- ④ 문학의 미적 자질과 영화 〈일 포스티노〉의 미적 자질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16. 정답 ②

해설 [독해-일치] 난도 中

“마리오 루폴로가 네루다에게 보내기 위해 고향의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제시되고 있지, 영화 속 인물들이 문학적 은유의 본질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진술은 어디에도 없다. 영화를 통해 은유를 이해하게 됨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17. 다음 () 속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는 해학과 풍자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시든 단숨에 써 내리는 一筆揮之인데 다 가희 ()의 상태라서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아름답다.

- ① 花朝月夕 ② 韋編三絶 ③ 天衣無縫 ④ 莫無可奈

17. 정답 ③

해설 [한자성어] 난도 中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것을 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은 ‘天衣無縫’이 맞다. 天(하늘 천) 衣(옷 의) 無(없을 무) 縫(꿰맬 봉): 천사의 옷은 꿰맨 흔적이 없다는 뜻으로,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우면서 완전함을 이르는 말. 『태평광기』의 곽한(郭翰)의 이야기에 나오는 말로, 주로 시가(詩歌)나 문장에 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① 花(꽃 화) 朝(아침 조) 月(달 월) 夕(저녁 석):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이라는 뜻으로, 경치가 좋은 시절을 이르는 말. ② 韋(다름가죽 위) 編(엮을 편) 三(석 삼) 絶(끊을 절): 공자가 주역을 즐겨 읽어 책의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으로, 책을 열심히 읽음을 이르는 말. ④ 莫(없을 막) 無(없을 무) 可(옳을 가) 奈(어찌 내): 달리 어찌할 수 없음.

18.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그는 여러 차례 TV 출연으로 유명세(有名勢)를 치렀다.
- ②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복불복(福不福)으로 정하기로 했다.
- ③ 긴박한 상황이라 대증요법(對症療法)을 쓸 수밖에 없다.

④ 사건의 경위(經緯)는 알 수 없지만, 결과만 본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18. 정답 ①

해설 [한자] 난도 上

‘치렀다’라는 서술어와 어울리려면 ‘勢(기세 세)’가 부적절함을 짐작할 수 있다. ‘유명세’는 ‘有名稅’라고 써야 옳다. 세금(稅金)이라고 말할 때 쓰는 ‘稅(구실 세)’가 적절하다.

* 有(있을 유) 名(이름 명) 稅(구실 세):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탓으로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속되게 이르는 말.

오답 피하기 ② 복불복(福不福): 복분(福分)의 좋고 좋지 않음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운수를 이르는 말. ③ 대증요법(對症療法):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는 치료법. 열이 높을 때에 얼음주머니를 대거나 해열제를 써서 열을 내리게 하는 따위가 이에 속한다. ④ 경위(經緯): 1. 직물(織物)의 날과 씨를 아울러 이르는 말. 2.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

‘경위(涇渭)’는 사리(사물의 이치)의 옳고 그름이나 이러하고 저러함에 대한 분별을 이르는 말로, ‘분별’의 뜻이 중심이 되는 말이고, ‘경우(境遇)’는 ‘사리(사물의 이치)나 도리(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자체를 뜻하는 말이다.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이 뒤쳐져서 사라져야 할 사양 산업이 아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와 식량 및 에너지 등 자원위기에 대응하여 나라와 생명을 살릴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농본주의의 가치를 앞세우고 농업 르네상스 시대의 재연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불확실성의 터널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농업은 자원 순환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이기 때문이다. 땅의 생산력에 기초해서 한계적 노동력을 고용하는 지연(地緣) 산업인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천적인 생명 산업이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한 뒤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키워 왔는지 모른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역사에 동승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넘겨주는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는 이유에 주목할 만하다.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 ① 고도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양하였다.
- ②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③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에 비해 정주 생활을 하는 민족이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다.
- ④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율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19. 정답 ④

해설 [독해-추론] 난도 中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율성을 드높이기 위해 과학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성장”이라는 마지막 문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20. 다음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효(孝)가 개인과 가족, 곧 일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면, 충(忠)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이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를 순응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다음을 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난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효도와 우애는 인(仁)의 근본이다.”

위 구절에 담긴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된다. 곧 종족 윤리의 기본이 되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이고 신분 사회의 엄격한 상하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만을 근거로 효를 복종의 원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효란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로서 의리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로 본다. 의리가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① 효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한 일차적인 인간관계이다.
- ②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다.
- ③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한 바탕이다.
- ④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 이치이다.

20. 정답 ③

해설 [독해-추론] 난도 中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한 바탕임을 드러내고 있다.